

‘지역의 등대(燈臺)’로 빛나다

‘입춘(立春)’이 지나 곧 ‘우수(雨水, 19일)’를 맞는다. 이 시기는 눈이 비로 바뀌고 얼음이 녹으면서 봄을 향해 농사 준비를 시작하는 때라고 한다. 입춘 등 24절기(節氣)는 태양(太陽)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정해졌으며 농사를 짓는 데 참고 되었다. 자연과 마주하여, 생명을 키우고, 음식을 지탱하는, 중요한 농업(農業)·어업(漁業)에 종사하는 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은 끝이 없다.

오늘 17일은 ‘농어광부(農漁光部)의 날’. 그 연원(淵源)은 1977년 이날 열린 제1회 ‘농촌(農村)·단지부(團地部) 근행집회(勤行集會)’.

이케다(池田) 선생님은	“마음의 힘은 위대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지지 않는, 강하고 강한 신심(信心)이 있으면, 일체의 환경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삼변토전(三變土田)’의 법리(法理)입니다.”라고 격려했다. 이래, 동부(同部)의 벗은 “지역(地域)의 등대(燈臺)이어라” “학회(學會)의 등대이어라”
--------------	---

라는 지침(指針)을 가슴에 품고, 신심근본(信心根本)으로 어려운 환경을 타고 넘어 전진(前進)해 왔다.

나가노현(長野県) 우에다시(上田市)에서 사쿠란보(체리)와 고원(高原) 야채를 재배하는 장년(壯年)의 일가(一家)가 있다. 자연(自然)이 상대인 농업이니만큼 온갖 고난이 있었지만 가장 큰 시련은 2019년 태풍19호였다. 계속 쏟아지는 비에 위험을 느껴 집에서 차로 5분정도 떨어진 농사작업장으로 대피했다. 이튿날 아침, 본 것은 홍수에 수백 미터 앞으로 떠내려간 자택. 비닐하우스와 농기계들은 흔적도 없이 유실되었다.

상상을 초월한 광경에 할 말을 잃었지만 상황을 알게 된 동지가 곧바로 달려와 격려를 해주었다. 그 마음에 일가는 분기(奮起). 지금이야말로 신심으로 일어설 때라며 복구(復舊)에 도전했다.

그날로부터 2년여의 세월이 흘렀다. 장년은 생활의 양식을 얻기 위해 스키장과 채소의 출하장에서도 일했다. 이번 봄에는, 재건(再建)한 자택에서 새로운 생활을 스타트한다.

조직에서는 지구부장(地區部長), 「세이쿄신문(聖教新聞)」의 배달원과, 지역의 등대로서 최전선(最前線)에 서 왔다. “이케다 선생님, 동지에게 힘입어 지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단코 질 수 없습니다.”라고. 이제 곧, 체리밭의 비닐하우스 정비로부터 본격적인 농사가 시작된다.

“겨울은 반드시 봄이 되느니라.”

(어서신판 1696쪽 · 전집 1253쪽)

라는 어금언(御金言)을 가슴에 품고, 희망의 봄을 향해 힘차게 앞을 향한다.

이케다 선생님은 “농어광부의 벼이, 태양의 불법(佛法)을 내걸고 발해가는 생명의 빛이, 어떠한 시련(試鍊)에도 지지 않는 사회의 ‘레질리언스(어려움을 타고 넘는 힘)’가 되어 간다.”라고. 농어광부 벼의 무사안온(無事安穩)을 기원하며 감사와 성원을 보내고 싶다.